



새로운 버전의 랑데부 주얼리 투르비용 출시

핑크 골드 케이스와 균형을 이루는 '세레니티 블루' 다이얼

주요 특징

- 간결한 디자인과 독특한 다이얼 컬러로 모던한 여성의 매력에 찬사를 바치는 타임피스
- 파인 워치메이킹과 주얼리 전문성을 결합하여 선보이는 215 개의

다이아몬드(2.52 캐럿)과 고정밀 투르비용 무브먼트

예거 르쿨트르가 재해석한 랑데부 주얼리 투르비용은 미학적 디자인과 탁월한 기술력을 결합하고자 하는 그랑 메종의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차분하고 독창적인 블루 그린 컬러의 선레이 브러싱 마감 다이얼은 39mm 사이즈의 18K 핑크 골드 케이스(750/1000)와 만나 풍부한 색채를 펼쳐냅니다. 화사하게 빛나는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가 타임피스를 찬란히 비추고 매혹적인 투르비용 디스플레이는 타임피스를 시계이자 나아가 마치 주얼리 작품을 연상시킵니다.

여성 시계의 오랜 유산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

예거 르쿨트르는 오랜 시간 여성을 위한 시계를 디자인하고 제작해왔습니다. 그중에서도 1880 년대에 제작한 르쿨트르 칼리버 7HP 는 여성들이 네크리스나 브로치로 착용했던 에나멜, 다이아몬드 세팅, 펄 비즈 시계에 장착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여성들은 시계를 주머니에 넣지 않고 손목에 착용하기로 결정한 남성들보다 수십 년 앞서 손목시계라는 새로운 개념을 처음 도입했습니다.

2012 년, 여성 시계를 제작해 온 그랑 메종의 탁월한 전문 기술을 이어받은 랑데부 컬렉션이 탄생했습니다. 랑데부 컬렉션은 독창적이면서도 간결한 디자인을 통해 모던한 여성의 매력을 표현했습니다. 기계식 컴플리케이션을 탑재한 여성 시계를 찾아보기 힘들었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컴플리케이션을 추가한 기계식 칼리버의 등장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2012 년 최초의 랑데부 투르비용이 출시된 이후 랑데부 컬렉션은 수년에 걸쳐 각기 다른



사이즈, 다양한 메탈 소재, 다채로운 무브먼트와 장식 디테일을 갖춘 모델을 선보이며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눈길을 사로잡는 세레니티 블루 다이얼과 투명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그리고 투르비옹 이스케이프먼트

랑데부 주얼리 투르비옹은 2023 년에 처음 공개한 블루 그린 컬러의 '세레니티 블루' 시그니처 다이얼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손목의 움직임에 따라 빛의 각도와 반사 방향이 달라지며 은은한 실버 그레이에서 눈부신 아쿠아마린과 세레니티 블루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색채의 향연을 펼칩니다. 이렇게 시시각각 바뀌는 다이얼의 컬러는 선레이 패턴으로 한층 더 선명하게 빛납니다.

다이얼 컬러는 같은 블루 컬러의 엘리게이터 가죽 스트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스트랩과 핑크 골드 폴딩 클래프는 모두 교체가 가능하며, 그랑 메종의 다양한 스트랩 중 원하는 컬러나 소재로 제작한 스트랩을 활용하여 취향에 맞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다이얼의 중심부에는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가 원형으로 세팅되어 있으며 투르비옹을 둘러싼 원을 이루는 다이아몬드는 투르비옹으로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이처럼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두 개의 원형 패턴은 조화롭고 균형 잡힌 디자인을 자연스럽게 강조합니다. 베젤 링 역시 그랑 메종의 인하우스 메티에 라르™ 아틀리에의 켄세팅 전문 기술을 선보이는 다이아몬드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케이스 측면을 가로질러 양쪽 러그의 끝부분까지 다이아몬드를 빼곡히 채워 넣었으며 크라운에도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역방향으로 세팅했습니다. 랑데부 주얼리 투르비옹은 총 215 개의 다이아몬드(2.52 캐럿)를 장식하여 투명한 광채를 발산합니다. 핑크 골드 케이스의 컬러는 랑데부 컬렉션을 상징하는 애플리케 '플로랄' 숫자 핸드 및 애플리케 'JL' 로고와 조화를 이룹니다.

다이얼 6 시 방향의 표시창을 통해 60 초마다 한 바퀴씩 회전하는 투르비옹 이스케이프먼트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 측정에 방해가 되는 중력의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만들어진 투르비옹은 마치 춤을 추듯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시계 메커니즘을 확인할 수 있는 매력적인 광경을 선사합니다. 섬세하게 폴리싱 처리된 핑크 골드 핸즈는 화살촉 모양의 팁이 돋보이며, 표시창을 감싸고 있는 다이아몬드 원을 따라 흘러가는 시간(초)을 알려줍니다.



모든 예거 르쿨트르 무브먼트와 마찬가지로 고정밀 오토매틱 칼리버 978 은 그랑 메종의 통합 매뉴팩처에서 설계, 조립 및 장식되었습니다. 다이얼 측면에서도 수작업으로 장식한 투르비옹 기어의 섬세한 디테일을 감상할 수 있으며, 사파이어 케이스백을 통해서도 무브먼트와 수작업으로 마감 처리한 구성품의 정교한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랑데부 주얼리 투르비옹을 재해석한 '세레니티 블루' 타임피스는 모던한 여성의 품격을 조화롭게 표현하며, 랑데부 컬렉션의 시그니처 코드를 통해 파인 워치메이킹과 하이 주얼리 제작 기술을 결합하는 그랑 메종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랑데부 주얼리 투르비옹

상세 정보

케이스: 핑크 골드(18K)(750/1000)

크기: 직경 39mm x 두께 12.15mm

무브먼트: 오토매틱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978

기능: 시간, 분, 초, 투르비옹

파워 리저브: 45 시간

다이얼: 선레이 브러싱 마감 세레니티 블루

케이스백: 투명한 사파이어 크리스탈

젼세팅: 총 2.52 캐럿의 다이아몬드 215 개

방수: 5 바(bar)

스트랩: 교체 가능한 핑크 골드 폴딩 클래스프를 장착한 교체 가능한 라이트 블루 엘리게이터 가죽

제품 번호: Q3412480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1833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드주의 평화로운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워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 알려진 매뉴팩처는 1,400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왔으며 430여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랑 메종의 워치메이커는 190년 동안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80여 개의 기술력이 한 지붕 아래 모인 매뉴팩처에서 기술적 독창성과 미적 아름다움, 절제된 세련미가 결합된 파인 워치메이킹 작품을 탄생시킵니다.

jaeger-lecoultre.com